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야 할 참된 사사 -복음으로 여는 사사기-

사사기 21:25, 요한복음 20:24-29

정윤돈 목사님

* **삿21: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요20:24-29**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사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다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성령충만을 받아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기도제목과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한다. 여기서 왕은 예수님을 말한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말씀을 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환경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자기 소견으로 살아간다. 나의 소견대로 살지만 사실 사단의 울무, 틀, 함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수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강단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세계 메일이 여러 가지 오지만 스팸도 있고 ‘메시지’도 있다.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기 바란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면 증인이 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러면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도 어렵지 않다. 내게 성취된 것을 얘기하면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들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말하기 때문이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의심을 했다. 그게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 그런 걸까? 단지 도마는 확인하고 믿는 스타일인 것이다. 성격상 믿지 못한 것이다.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니지 않으려고 핑계대는 사람과 기드온, 사사들, 도마처럼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체질이지만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도마에게 주셨다. 도마도 기드온도 사실은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걸 좋아하는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옳다. 그러다 하지만 인간은 다 부족한 사사들이다. 그래서 팀으로 함께 해야 한다. 성격이나 성품이 다 같지 않다. 그걸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복음적인 자세다.

복음은 구원받는 것이지만 복음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삼아주시는 것처럼 원수까지도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해하는 자세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 소견대로 돌아간다. 마귀와 사탄 쪽으로 간다.

오늘 사사기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 사사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신앙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사실 사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제가 인공지능인 chatGPT에게 구약성경의 사사와 지금의 대통령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했더니 chatGPT는 다음과 같이 알려 주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판사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주로 백성을 지도하고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대의 대통령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국가의 지도자로서 행정, 외교, 법률, 군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때 사사는 군사와 지도자, 판사의 역할도 했다. 인공지능 chatGPT가 아주 잘 정리해 주었다. 사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우리도 사사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우리도 너무 불완전하다. 그래서 서로 함께하고 윈윈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사사가 되었을 때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땅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대는 세워질 것이다. 또한 사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들을 의미한다. 구약시대의 사사들이 그 시대와 백성들의 파수대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선교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사들처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미션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전도방법과 지교회운동으로 정복해 나가야 한다.

1. 12명의 사사 중 중요한 사사들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한다. 먼저 그 12명 사사들의 이름은 웃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이다. 우리가 시대를 보면 왕들이 많고 대통령도 많았지만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 첫 번째의 대표적인 사사는 웃니엘이다. 웃니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의 가족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구원자 웃니엘을 보내주셨다. 지금 현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과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웃니엘과 같은 파수꾼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 제가 운동현장에 가니까 저보다 나이 두세 살 많은 형님이 저를 만나면 항상 자기는 올해 운동하다가 내년에 죽을거라고 하신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이다. 관장님께서도 어렵지만 어려울 때엔 결국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 나를 구원하고 도와달라는 말이다. 현장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 여러분은 스스로 부족하더라도 사사 역할을 해야 한다. 친구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다. 여러분은 가족과 친척과 가문의 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부터 과송받은 자다. 사사기 3장 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라고 했다.

(2) 두 번째 대표적인 사사는 드보라다.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오히려 장군 바락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사사기 4장 14절을 보겠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에서 내려가니” 여자 사사였지만 장군에게 일어나라고 한다.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자지만 믿음 안에서 대장부 같을 수 있어야 한다. 드보라는 With, Immanuel, Oneness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 장군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다.

(3) 세 번째로 유명한 사사는 기드온이다. 기드온은 훌륭한 점이 가장 많은 사사였다. 그러나 도마처럼 의심도 많았고 큰 실수도 했다. 사실 대부분의 사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리석고 심지어 악을 행한다. 이는 지금 현장에 있는 정치, 종교지도자들과 직장 상관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들이 있었을 때 평화의 시대가 지켜졌다. 사사들이 그렇게 못났지만 사사들이 있을 때에만 평화가 지켜졌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① 기드온은 의심이 많았다. 사사기 6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양털 문지와 이슬의 시험'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다. 전쟁에 나가라고 할 때 기드온은 도마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스라엘과 나의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전도하려고 하니 힘들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 중요한 건 중심이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문지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응답을 주실 때가 많다. 도마도 의심하였지만 결국은 최고의 신앙고백을 하였다. 베드로도 소중한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가만히 보면 도마가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을 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도마는 의심하였지만 사실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화하고 싶다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여러분의 것이 있다.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한다. ② 또한 기드온은 큰 실수도 하였다. 기드온은 적에게 얻은 엄청난 금으로 의복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금 예뻐서 결국 기드온과 그 집에 울수가 되었다. 기드온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금이 생기니까 예뻐서 멋지게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다. 결국 울수가 되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걸옷을 찢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천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러싼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뻐 하나님을 만드려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취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울수가 되니라" ③ 또한 기드온은 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던 음란하고 부도덕한 사사였다.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세겔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아비멜렉은 형제 70명을 죽였고, 결국 사사의 직분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이런 재앙과 저주를 물려줬다. 여러분의 목사님들도 다 부족하다. 그러나 그런 분이라도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 문 닫는다. 아무리 부족해도 목회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자기 믿음의 수준이다.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거기서 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으로 유명한 사사는 삼손이다.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을 받았고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혈기와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눈이 뽑혔고, 복수는 하였지만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 결국 모든 인간적인 리더자와 사사는 부족하다.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부모님도 자식도 교회도 목사님도 부족하더라도 있어야 한다. 어느 순간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지금 감사하고 사랑을 줘야겠다. 지금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 번째 "신앙과 순종의 중요성"이다. 이것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망대이다. 하나님은 종종 사사를 통해 백성에게 신앙과 순종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사사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잘못했으니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말이다.

(2)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이다. 이것은 천명, 소명, 사명의 망대이다. 사사기에서는 종종 백성의 패배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부각된다.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면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부모님과 같다.

(3) 세 번째는 "죄와 회개의 교훈"이다. 이것은 당연, 필연, 절대적인 영적 교훈이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죄를 지었다.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했다. 이는 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회개하면 용서해주신다.

(4)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과 특별한 도움"이다. 이것은 일심, 전심, 지속의 망대이다. 파수꾼은 이러한 영적인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 즉, 여러 번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백성을 도우셨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한다.

(5)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구원자 사사"이다. 사사기의 나오는 사사들의 대부분은 불완전하고 심지어는 어리석고 큰 실수도 하였다. 그래서 오직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시고 참된 사사가 될 수 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사탄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참된 사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복음의 7대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그리고 교회이다. 오늘 이 중에서 10가지 비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이 비밀을 알 때 참된 사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 즉 10가지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상황과 현장에서도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다. 그 10가지는 '독립',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 'Summit', 'Nobody', '절대'이다.

① '독립'.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으라는 말이다. 독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진짜 독립이다. 요셉이 그랬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다 살렸다. 이게 진정한 영적 독립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 의지하면 결국은 섭섭해 하고 좌절한다. ② '사실'.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라. ③ '역발상'. 가짜인 나의 틀을 깨고 진짜인 반대쪽을 보라. ④ '시너지'. 모든 것에 대하여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라. ⑤ '위기'. 위기 속에 반드시 해답과 응답의 기회가 있다. ⑥ '무경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리라. ⑦ '재창조'.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 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라. ⑧ '서밋'. 영적 서밋이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해 가게 된다. ⑨ '노바디' 현장. Nobody현장 살리는 킨텐츠를 찾으면 Everybody문화 되리라. ⑩ '절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적인 것을 주시리라.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10가지 비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같이 이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사들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